• 1교시 언어 영역 •

정 답

1	①	2	⑤	3	⑤	4	④	5	③
6	④	7	⑤	8	⑤	9	③	10	④
11	③	12	①	13	②	14	③	15	②
16	③	17	④	18	⑤	19	③	20	③
21	②	22	②	23	①	24	②	25	③
26	①	27	⑤	28	⑤	29	①	30	②
31	⑤	32	①	33	④	34	⑤	35	②
36	③	37	④	38	④	39	④	40	③
41	②	42	⑤	43	④	44	⑤	45	⑤
46	⑤	47	④	48	③	49	②	50	⑤
51	①	52	③	53	⑤	54	③	55	①
56	①	57	②	58	④	59	③	60	①

해 설

1. 이제 관광 안내원의 설명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관람하실 수원 화성은 세계적인 문화 유산입니다. 화성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동양 성곽의 백미로 꼽혀 9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요, 특히 화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3년간에 걸친 축성 과정이 모두 「화성성역의궤 라는 책에 기록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성의 주요 시설물들을 「화성성역의궤 에 그려진 설계도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따가 실물을 구경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옹성입니다. 이 구조물은 모양이 독을 반으로 쪼갠 것과 같다고 하여 '항아리 옹'자를 넣어 옹성(甕城)이라고 했어요. 옹성은 성문 앞에 사각형이나 반원형의 구조물을 덧붙임으로써 성문에 접근한 적을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치성입니다. 곧게 뻗어나간 성벽의 중간에 성벽과 같은 높이로 앞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방과 좌우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봉돈입니다. 봉돈은 파수를 설치하여 정찰과 정보 전달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데요, 수원 화성의 봉돈은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게 축조되었으며 커다란 굴뚝 모양의 화두 다섯 개가 우뚝 솟아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공심돈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장거리 관측소입니다. 공심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위·아래에 구멍을 많이 뚫어서 바깥 동정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총포를 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료에서 보시는 공심돈은 달팽이 모양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지요.

이밖에 여러 구조물들이 더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제의도]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관광안내원이 설명하는 것은 수원 화성의 옹성, 치성, 봉돈, 공심돈이다.

옹성은 성문 앞에 반원형의 구조물이 있다는 점에서 ②의 그림과 일치하고, 치성은 성벽 중간에 성벽과 같은 높이로 돌출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④의 그림과 일치하고, 봉돈은 굴뚝 모양의 화두 다섯 개가 솟아 있다는 점에서 ⑤와 일치하고, 공심돈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는 점에서 ③과 일치한다.

2. 이번에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 : 저 시내버스 보세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B니 G니 알파벳을 달고 다니다니……. 저 간판들 봐요. 맥도날드, 헤어숍, 메가박스, SK텔레콤…….

여자 : KB, SDI, KT&G, 포스코……. 웬만한 대기업도 이름 다 바꾸었어요.

남자 : 회사 이름, 상품 이름, 온통 영어투성이인데, 도대체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생기는 거라면 몰라도…….

여자 : 회사 이미지가 새롭지 않나요? 그게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그랬겠지요. 왠지 업그레이드된 듯한 느낌도 들고.

남자 : 풀무원, 해찬들, 우리은행,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금성, 선경, 국민은행, 이런 것들도 좋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라는 느낌도 들고. 그게 회사 매출을 늘리는 데에 더 이롭지 않을까요?

여자 : 최첨단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어쩐지 '굴뚝산업' 냄새가 나는 이름보다는 좋잖아요. '포항종합제철' 대신 '포스코', 무슨 화학공업 대신 무슨 케미칼, 또 무슨 염색가공 대신 무슨 디지텍, 훨씬 세련되어 보이잖아요.

남자 : 일본 회사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이면서도 여전히 미쓰비시니 도요타니 혼다라고 불러요. 일본 냄새가 물씬 풍기잖아요. 폴크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독일 기업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고요.

여자 : 이제 세계화 시대예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고요.

남자 : 우리말 이름으로 국제 사회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국적이 불분명한, 개성 없는 회사보다 어떤 나라의 고유한 느낌이 나는 회사가 더 호감이 가지요.

여자 : 세계의 흐름이예요. 추세라구요. 그런 구닥다리 생각 버리세요. 촌스럽게.

남자 : 그게 잘못 되었다구요. 세계화 시대일수록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지요.

[출제의도]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회사 이름을 영어로 바꾸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남자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자는 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논쟁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견해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③ 세계화라든지, 회사 이미지와 매출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된 견해를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진술이다.

3. 이번에는 수업 장면을 들려 드립니다. 문제와 답지까지 듣고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선생님! 환경 호르몬이 뭐예요?

선생님(여) : 음, 환경 호르몬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존재하는 물질이 생체 내로 들어와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물질을 말해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정식 이름이고. 지금까지 한 육칠십 가지가 확인되었는데 어느 물질이 또 환경 호르몬으로 밝혀질지 몰라요.

남학생 : 대표적인 게 뭔가요?

선생님 : 담배 연기나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대표적이고,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서 나오는 스티렌, 음료수캔의 내부 코팅제에 담긴 비스페놀A 같은 게 있어요.

여학생 : 환경 호르몬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 생물의 몸 속에 들어가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예요. 성장을 방해한다든지 각종 암을 유발한다든지. 특히 생식 기능에도,

남학생 : (말을 끊으며 바로) 생식 기능이요?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 건가요?

선생님 : 단지 그런 뜻은 아니고, 개체 발생의 미묘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서 개체 발생이 진행될 때 염색체상으로는 암컷인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생식기가 수컷으로 분화되는 식으로 말이지요.

여학생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 환경 호르몬은 자연 분해가 매우 더디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만들어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경미가 질문을 했는데, 한 사람씩 자기 생각을 말해 볼까?

이제 문제와 답지를 들려 드립니다. 다음 중, 선생님의 설명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첫째 학생(남) : 일회용 용기를 안 쓰는 게 좋겠어요.

둘째 학생(여) : 음료수 캔도 그래요. 내부 코팅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학생(남) :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넷째 학생(여) : 어떤 물질이 환경 호르몬인지 철저히 연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다섯째 학생(남) : 녹지를 잘 보호하고 늘리면 환경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하게 반응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환경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거기에 적합한 대응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다섯째 학생의 '녹지' 관련 해결책은 선생님의 설명에 관련 정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연 분해가 더디다는 지적에 비추어 볼 때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다.

4. 이번에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남을 질책할 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책은 잘못하면 인간 관계마저 나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접근 단계'입니다. 질책을 위해 상대방에 말을 거는 단계로, 일상적인 대화나 상대방의 근황을 묻는 말로 시작하여 상대방의 거부감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질책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상대방이 잘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해야 하며,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수정했을 때에 오는 이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태도를 변화시키는 '대안 제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제시한 대안을 행동으로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행동 촉구 단계'로 이어집니다. '행동 촉구 단계'는 실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안 제시 단계'와는 구별이 됩니다. 마지막은 '위로 단계'로, 상대방을 질책만 하면 인간 관계가 소원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단계입니다.

잘 들었습니까? 이번에는 질책의 대화 상황이 담긴 테이프를 듣고 질책의 말하기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 봅시다.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조작하여 켜는 소리>

선생님 : 철수야,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 얼굴이 수척해 보이네. 요즘 많이 피곤하니?

학생 : 예-에. 좀 피곤해요.

선생님 : 그런데 철수야, 너 오늘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더구나.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란다.

학생 :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보니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은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 밤에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학생 : 예.

선생님 : 그래도 우리 철수가 3학년이 되더니 밤늦도록 공부도 하고 많이 변했어.

[출제의도] 강의를 듣고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강의에서 제시된 대화에는 대안 제시 단계는 제시되어 있으나 행동 촉구 단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행동 촉구 단계'는 실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

서 '대안 제시 단계'와 구별되는데, 강의에서 제시된 대화에는 실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5~6]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1 : '경제뉴스 깊이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중 절반 가까이를 2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양희승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어떻습니까?

남자2 : 예, 청년 실업률이 7.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단지 최근 2, 3년 사이에 약 2%가 올라갔기 때문에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다른 선진국들은 10%대, 심지어 20%까지 올라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 실업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실업률이 떨어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남자1 :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자2 : 우선은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고용 창출력이 약화된 경제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정부의 대책도 실업 예방이라는 사전 대책보다는 단기적 안목에서 단지 실업자 구제라는 사후 대책에 머물고 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자1 :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단계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양 연구원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자2 :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는 고용 적합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직업 훈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직자의 실무 능력 배양 훈련과 직장 체험 훈련, 그리고 취업 알선 등을 묶는 일련의 종합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 교육과 현장 실습 훈련을 결합한 유럽 국가들의 견습 제도도 대표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1 : 그렇군요. 그런데 청년 실업 중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 그리고 저학력자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요…….

남자2 : 선진국에서는 젊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다른 연령층과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출산 휴가시에 급여를 지급하고 공공 육아 시설에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이미 청년이 된 후에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의 중간 탈락률을 낮춰서 저학력자를 줄이고, 한편으로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취업 연령에 이르기 전에 직업 학교에 보내 일찍부터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5. [출제의도] 말하기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실업 문제에 대해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를 끌어들여 실업의 현황을 이해하도록 했으며, 역시 선진국의 경우를 끌어들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정보에 적합한 반응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구원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중간 탈락률을 낮춰서 저학력자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현장 체험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은 구직자와 학교 미진학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일 뿐이다.

7. [출제의도] 만화를 보고 적절한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만화는 학벌에 의한 차별이 고질화되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즉 만화는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개선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8. [출제의도]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한 논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마지막 자료에서 웰빙 문화가 경제적 하위 계층에게 소외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나 웰빙 문화가 소득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자료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그릇된 소득 분배가 웰빙 문화를 더욱 왜곡시킨다고 하는 생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인테넷 검색 자료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웰빙 문화가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많이 왜곡돼 있음을 개념적 정의에서 알 수 있다. ② 마지막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웰빙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즉 소득의 공평한 분배가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③ 세 번째 인터넷 검색자료에서 알 수 있다. ④ 네 번째 인터넷 검색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웰빙을 빙자한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9. [출제의도] 화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얼짱 신드롬에 대해 부정적 입장에서 제시한 주장은 '얼짱 신드롬이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는 '얼짱 문화가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얼짱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얼짱 문화에서 발생한 폐해는 될 수 있지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1>은 거짓과 진실 중에 진실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럴 때 자신이 하는 일이 생산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갖고 <보기2>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글을 쓰면 된다. ④는 나무에 비유하고 거짓과 진실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당신의~있는가?'라는 표현을 써서 문제 의식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비유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보기2>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 ③<보기2>의 조건을 만족시키나 쓰려는 요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⑤ 대조의 표현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11. [출제의도] 작성된 개요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업계획서>는 <개요>의 세 번째 항목인 '전공 이외의 교내·외 활동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제시된 <학업계획서>에서 학과의 학술 동아리에 참여하거나 한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한문 공부를 하는 활동은 교내·외 활동 중 전공과만 관련된다. 따라서 전공 이외의 활동 계획은 제시된 <학업계획서>에 구체화되지 않았다.

12. [출제의도]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철학은 살아 움직이는 인간, 인간의 이론적·실천적 활동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그 위해 철학이라는 학문이 세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인간의 삶을 전제로 하는 학문임을 알 수 있다. 전제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세우는 것'이라는 뜻이다.

13 [출제의도] 자신이 쓴 글을 퇴고의 원리에 따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세 문단은 그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각 문단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세 문단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방송 덕분에 높아졌다→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아시아 전체가 조화롭게 지내게 하자'는 식으로 논지가 전개되고 있는데,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 사이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과 아시아 전체가 조화롭게 지내자는 주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멀기 때문이다.

14. [출제의도] 다의어에서 기본적 의미와 확장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다의어에서 구체적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가 기본적 의미이고 추상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확장된 의미이다. ③에서 '갈던지'는 '이빨을 마주 대고 문지르다'는 구체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기본적 의미에 해당한다.

[15~19] 임철우, '아버지의 땅'

15. [출제의도] 사건의 내용을 미루어 알아 보는 문제이다.

손발이 묶인 채로 누워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마음 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철사줄에 묶여 잡혀 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소대장이 유골이 빨갱이였을 것이라 하였지만 인사계는 그걸 누가 아냐고 하여 유골의 신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 '나'는 유년 시절의 깊은 상흔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애써 죽음을 부인하고 싶은 심정을 지니고 있다.

16. [출제의도] 핵심적인 소재의 기능의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념의 대립이 유발한 고통스러운 굴레를 상징하는 '철사줄'을 노인이 허공을 향해 내던지는 순간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고, 증오스럽게 생각하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게 된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 포용하는 함박눈에 비해 냉혹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철사줄'은 이념적 대립의 극복과 화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인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할 때 고려할 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진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통해 유해가 형의 것임을 확인하지만 '나'는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유해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것이다. 따라서 '나'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노인은 소대장과 인사계가 유골의 신분에 대해 언쟁을 벌이는 것을 듣고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걸 굳이 따져 무엇 하자는 말이오."라고 하여 서로의 적대감으로 인한 비극을 넘어서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념보다는 포용을 통해 비참하게 죽은 자를 끌어 안는 너그로운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죽음에 대해 관용과 포용의 너그러움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은 ⑤가 된다.

[오답풀이] ①은 이상화의 '통곡'으로 참담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 ②는 박인한의 '검은신'으로 슬픔과 죽음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상심과 절망의 심정을, ③은 조병화의 '어느 여행자의 독백'으로 삶과 죽음에 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심정을, ④는 조정권의 '산정 묘지'로 허무한 지상적 삶을 초월하고, '가장 높은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산정 묘지'에 다다르려 하는 시인의 현실 초극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9. [출제의도] 표현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유해의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을 풀고 새로이 무덤을 만들어주는 노인의 정성스럽고 경건한 동작을 지켜보며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환영을 떠올리며 '나'는 노인이 수습한 유골의 모습처럼 아버지가 차가운 땅에 누워 있을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심정을 갖게 된다. 이것은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나'가 절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아버지는 이제 저주스런 대상에서 연민의 대상으로, 나아가서는 공감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 된다.

[20~23] 이인식, '자기 조직하는 세계'

20.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창발성은 구성 요소가 개별적으로 갖지 못한 특성이나 행동이 구성 요소를 모아 놓은 전체 구조에서 저절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창발성의 의미를 '숨겨진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정리한 ③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1. [출제의도] 글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주로 복잡계와 자기조직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개별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전체를 이룸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질서를 형성하거나 이전에는 없던 특성이 새롭게 출현한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복잡성 과학을 연구할 때에는 주로 개별 요소들이 전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과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출제의도] 어휘 형성에 사용된 명명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베나르 세포'라는 명칭은, 물리학자인 베나르의 실험 결과에서 얻어진 것이고(ㄱ) 6각형의 세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ㅁ) 붙여진 것이다.

23.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유사한 다른 상황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참조할 때, 자기조직화는 많은 개별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과정이며 창발성은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①은 집단을 이루는데 참여하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언급이므로, <보기>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자기조직화의 원리나 창발성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 프리고진이 자기조직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던 점균류 곰팡이의 응집에서, 점균류 곰팡이들은 서로 신호를 보내 수만 마리가 일제히 요동을 시작하여 한 곳에 모인 것이지, 어떤 지시에 의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4~29] 정약용, '구우(久雨)', 오장환, '소야의 노래',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24. [출제의도] 작품을 개괄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다)에는, 도시의 물질 문명 속에서 '상품들'로 전락하여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들이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 즉 정신적인 가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적 가치의 대립이 시상 전개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가)에는 가치의 대립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③ (나)의 '차디찬 묘, 파랗게 얼어'는 냉혹한 현실의 분위기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다)의 '연기가 나고, 고무 탄내, 소음 부엉거리는'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노란 달, 향기롭게 출렁이고'는 '아마존 강'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3, 4행의 배경 묘사는 화자가 드러내는 한탄의 정서를 암시하고, (나)의 8~11행의 배경 묘사는 비애에 젖은 화자의 정서를, (다)의 4~9, 12~13행 등의 배경 묘사는 화자의 갑갑하고 불쾌한 정서를 암시한다.

25.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원작을 패러디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은 1, 2행에서 (가)의 3, 4행을 모방하고 있고, 빈부 격차라는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작품이다.

[오답풀이] ①, ⑤ (가)를 모방한 표현이 없다.

②, ④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다.

26. [출제의도] 두 시의 화자가 보이는 태도를 구별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글 짓는 일로써 수심을 달래 보'지만 '날 맑아도 또 혼자서 탄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글 짓는 일이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화자는 시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의 화자에 대해 ①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② (가)의 화자는 황폐한 삶 속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사람들의 본성이 환경 때문에 달라졌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시어를 바탕으로 시의 의미를 분석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은 이정표가 눈 속에 묻혀 버려서 갈 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나)의 화자가 '낯선 집에 돌을 던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갈 길을 탐색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시의 후반부에서 개가 짖자 비애의 감정에 빠지는 화자의 태도는 의지적인 면모를 찾을 수 없게 한다.

28. [출제의도] 시를 다른 갈래의 예술을 통해 표현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시가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에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으므로 ⑤와 같은 계획은 시의 주제를 부각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29.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및 처지를 파악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이정표'가 눈 속에 묻혀 있는 상황은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화자는 방향을 상실함으로써 한탄하는 것인데, 이러한 화자의 정서와 처지는 ①에도 잘 드러나 있다. ①의 화자가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해야 하는 '열십자 복판'에 서서 '갈 길은 하나 없소'라고 말하는 것은 방향 상실의 비애를 토로한 것이다.

[30~34] 남진우, 신화 속에 숨은 인간의 뿌리를 찾는다.

30.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신화가 민족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과 ④는 4단락과 5단락에서, ③은 첫 단락에서, ⑤는 3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31.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어진 글은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지문에서 신화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진실을 보여 주고 총체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답(⑤)이 지문의 논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32. [출제의도] 글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근원적인 진실을 보여 주고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그리스 신화를 들고 있다. 즉 이 글은 그리스 신화만을 근거로 신화에 대한 일반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①이 이 글에 대한 비판적인 의문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신화를 문화 컨텐츠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이 글의 주제와 무관하다. ③ 이 글의 초점은 신화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므로 탐방 기사에 의한 정보는 이러한 초점과는 무관하다. ④ 이 글은 신화의 서사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다. 아울러 신화가 형성된 이유 또한 집필 의도로 볼 수 없다. ⑤ 지문에 이미 언급된 이야기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트로이 전쟁은 신화적 세계에 대한 갈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나머지 선지들은 본문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보기>에 대한 해석도 적절한 것들이다.

34.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침전(沈澱)'의 사전적 의미는 '액체 속에 있는 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음. 또는 그 물질'이며, 지문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다. '물, 공기 따위의 작용으로 점차 분해됨.'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침전'이 아니라 '풍화(風化)'이다.

[35~39] 하승우, 희망의 사회윤리 똘레랑스

3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똘레랑스가 '자기중심주의의 포기', '비이성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 '토론' 등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윤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은 '똘레랑스의 원리와 의의'(②)이다.

[오답풀이] ①, ④, ⑤는 본문에 언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엽적인 것으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아니므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특정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전후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추리해 보면, 똘레랑스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존을 추구할 때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나머지 선지들은 '차이의 질서'라는 말과 '공존'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들이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 후 다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덕적 앵똘레랑스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비이성적인 것들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앵똘레랑스의 속성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똘레랑스 속에 담긴 앵똘레랑스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관점이나 입장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④는 이러한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보편적 가치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①), 일부 계층에 주어지는 사회적 특권(②), 기본권에 대한 억압(③), 남녀 차별(⑤)등은 모두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도덕적인 의무인 앵똘레랑스(똘레랑스 속에 담긴 앵똘레랑스)의 대상에 해당된다.

39. [출제의도] 상황에 맞게 한자성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구인의 노력'은 못나고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타산지석'이라는 한자성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귀감(龜鑑: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40~43] (가) 하수일, 병죽설(病竹說)' (나) 김병권, '숨어서 피는 꽃

40. [출제의도]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병든 대나무를 살펴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사람도 그와 같이 물욕으로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전하고 있고, (나)에서는 자신의 정원에 심은 수국을 관찰한 체험을 통해 깨달음(신산인고 끝에 나오는 겸허한 자세가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병든 대나무의 부정적인 속성만 드러나 있다. ② 두 글 다 옛일을 회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두 글 다 독자들에게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이지적인 성격의 글이기 때문에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두 글 다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그 점을 고쳐주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므로 세상일에 초연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두 글의 필자가 대나무와 수국의 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필자의 중심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필자는 병든 대나무라는 하찮은 사물로부터 인간의 바른 본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유추해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인성을 알려면 사물의 이치(물성)를 알아야 한다고 한 <보기>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②와 같이 될 것이다.

42. [출제의도] 주요 정보들간의 특성을 대비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의 필자는 병든 대나무가 길어야 할 데가 짧고 곧아야 할 데가 굽어 있다고 증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좀벌레라는 외부의 시련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처럼 병들어 있는 대나무는 곧 대나무가 가져야 할 본성이 변한 것으로 진단했다. 증상을 이렇게 진단했으므로, ⑤에서 '쓸모가 없어짐'으로 정리

한 것은 잘못이다. 다시 말해, 필자는 병든 대나무가 인간에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이다.

43. [출제의도] 글에 삽입할 작품을 창작하고 수정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마지막 대목에 삽입할 시이므로, 그 내용이 (나) 글 전체와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보기>의 초고는 학의 고고함이 주로 드러날 뿐이어서 삽입시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④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풍상 다 겪고도 기상 더욱 맑은데'라고 하면 시련을 겪은 수국의 속성과 어울리고, '그늘진 낮은 자기에서 소리 그윽하네'라고 하면 겸허하면서도 고고한 수국의 속성과 어울리게 된다.

[44~47] 작자 미상, '숙향전(淑香傳)'

44. [출제의도] 작중 인물들의 태도에 대해 바르게 파악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숙향은 남편인 이선이 매향과의 혼사를 거절하면 신하로서 황제의 명을 어기게 되니 옳지 않다고 했고, 매향이 평생을 홀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니 그녀로부터 원한을 살 수 있다고 염려하였다. 이런 이유로 숙향은 매향과의 혼사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매향이 타문에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선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 한번 정해진 혼약은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② 황제는 처음에는 이선을 두둔하지만 나중에는 양왕의 편에서 일을 해결하려 들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주지도 못했다.

45. [출제의도] 일정한 준거에 의해 작중 인물의 행위를 비판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양소유는 다른 여자와 이미 혼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마로 삼겠다는 황제의 명에 대해 당당하게 거절 상소를 올렸으며, 이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병을 핑계로 내세워 혼사를 피하려는 이선의 행위가 비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혼인은 이선 자신과 집안의 일이니 매향과 혼인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거절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불순하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기>의 양소유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다. ③ 이선이 매향과의 혼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④ <보기>의 양소유도 황제의 명을 어기고 있으므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46.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특징을 바르게 파악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선은 자신이 왜 칭병하면서 혼사를 피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숙향을 납득시려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매향과 혼인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열거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그런데, 여기서 이선은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충분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⑤는 맞지 않은 설명이다.

47. [출제의도] 예상되는 줄거리의 근거를 글 속에서 찾을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태몽에서 선관이 '매화나무(→매향)에 오얏나무(→이선)를 접하면'이라 한 것은 매향과 이선의 인연을 예언한 말로, 그렇게 되면 '지엽이 번성하리라'고 한 것은 자손의 번창을 예언한 말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매향이 이선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 점, 그의 둘째 부인이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기>와 같은 줄거리를 구성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왕이 양왕에게 사과한 일은 <보기>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일이 없다고 해도 <보기>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48~51]신성철, '나노 기술의 중요성과 미래'

48.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나노 물질의 제조 기술 중 상향식 방법은 원자나 분자의 결합력을 이용한 자기 조립 현상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오답풀이] ①은 첫째 문단을 통해서, ②는 둘째 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④는 정보 기술 분야에 대한 나노 기술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넷째 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⑤는 우리 나라의 나노 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한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9.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글 전체의 내용과 ㉠에는, '나노 모터'를 이용하여 만든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면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노 모터'가 몸 속의 ATP를 연료로 구동된다는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노 모터'가 단백질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④ 나노 크기의 로봇이므로, 분자 수준의 상태까지 조절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축측할 수 있다.

50.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참조할 때, 나노 물질을 제조하는 기술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노 소재를 활용한 생활용품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혁명적으로 변화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한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시문의 내용이 나노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고, <보기>의 수집 자료도 나노 기술을 응용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바탕으로 쓰는 기사의 제목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③ <보기> 2의 내용은 기계 산업 분야에서 나노 기술을 응용한 예이다.

51. [출제의도] 다른 관점에서 글의 내용을 비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주장에는, 대상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환원주의적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점이 담겨 있다. 그런데, 제시문에 소개된 나노 기술은 환원주의적 기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필자 역시 그러한 기술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물질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52~56] 최문규, '기술공학적인 매체 시대에서의 예술과 문학'

5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매체의 의해 합성된 이미지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응집된 시간'에 의존하며, 뮤직 비디오의 경우 시간적 연속성 구조가 파괴된 장면들이 돌발적인 사슬로 엮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은 '확장된 시간'이 잘못 진술된 것이다.

53.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매체 작품에 관한 정보들을 통해 전통적인 미학론자의 예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⑤는 '오늘날의 매체 작품은 매체들 간의 상호 소통의 결과이다', '새로운 장르 혼합 현상이 나타난다'와 같은 정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은 둘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②는 첫째 문단의 셋째 문장, ③과 ④는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54.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③은 매체 시대 이전에 중시되었던 지각 방식이다.

55. [출제의도]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복사하여 책을 만드는 경우, 이는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짠다는 의미를 갖는 '조합(組合)'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담합(談合) :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③ 병합(倂合) : 둘 이상의 기구나 단체, 나라 따위를 하나로 합침, ④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⑤ 접합(接合) : 한데 대어 붙임. 또는 한데 닿아 붙음

56. [출제의도] 대상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 글쓴이는 전통적인 예술 방식과 매체 시대의 새로운 예술 방식이 모두 문화적 동인으로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문화 현상에 담긴 두 문화 방식을 모두 존중하는 평가가 합당하다.

[오답풀이] ②는 두 예술 방식이 절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③과 ④는 어느 특정 방식만을 옹호하는 견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57~60] 전혜영,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특성'

57.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친족 호칭어는 친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넷째 문단에서는 친족이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기 위해 사회적 신분에 대한 호칭어를 가족 사이에도 사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기 위해 친족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58. [출제의도]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고 포괄할 수 있는 언어관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발달된 우리말의 호칭어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가 문화 또는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언어는 문화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다.

59.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조카'의 사회적 지위는 '교수'이다. 따라서 '가게 주인'이 '조카'에 대해 '교수'라고 말하는 것은 신분에 비해 높게 호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당숙'은 '조카'가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여 '교수님'이라는 사회적 신분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게 주인'은 '당숙'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어를 통해 대인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친족에게 사회적 신분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회적 신분 호칭어를 실제 지위보다 높게 사용하는 것도 모두 유교 문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게 주인'과 '당숙'이 사용한 호칭어에는 유교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0. [출제의도] 일상 생활에서 호칭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아내가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에는 '아가씨'라고 불러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고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정확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